

글로벌 HCR로 세계 속에 '우뚛'

전북대 이태희 교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선정 클래리베이트 선정 논문 피인용 횟수 상위 1% 해당 발표 논문 60% JCR 상위 10%에 게재... 질적 수준 높아

전북대 이태희 교수(전자공학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에 선정됐다. 전북대는 정보분석 서비스 기업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발표한 '2019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CR, Highly Cited Researchers)'에 이 교수가 크로스필드(Cross Field)에 이름을



올렸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클래리베이트는 6년째 웹 오브 사이언스(Web of Science) 데이터를 기반으로 논문 피인용 횟수를 분석해 상위 1%에 해당하는 연구자를 선정, 발표하고 있다. 올해 HCR(Highly Cited Researchers)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한국 기관 소속 연구자는 41명에 불과하다. 이 교수는 동적 시스템 분야에서 왕성한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각종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링을 유도하고, 동특성 분석 및 안정성 해석을

통해 시스템 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꾸준히 영향력 있는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발표한 40여 편의 논문 중 60% 이상이 JCR(Journal Citation Reports) 상위 10% 학술지에 게재될 정도로 논문의 질적 수준이 높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출판사인 '스프링거 네이처(Springer Nature)'의 제인으로 제한 신호를 갖는 동적 시스템의 제어 및 필터링에 관한 최근의 발전(원제: Recent Advances in Control and Filtering of Dynamic Systems with Constrained Signals)과 시간지연을 갖는 동적 시스템: 안정성 및 제어(원제: Dynamic Systems with Time Delay: Stability and Control)의 두 편의 서적을

발간하는 등 왕성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클래리베이트는 매년 이맘 때 웹 오브 사이언스(Web of Science) 데이터를 기반으로 논문 피인용 횟수를 분석해 상위 1%에 해당하는 연구자를 발표한다. 전체 21개 카테고리 및 크로스필드(Cross Field) 1개로 총 22개 분야로 나눠 선정한다. 올해는 전 세계 60여개 국에서 총 6,216명이 글로벌 HCR로 선정됐다. 이번 명단에는 올해 노벨상 수상자인 그레고 서먼자 미국 존스홉킨스대의 대 교수(생리학), 존 구디너프 미국 텍사스대 교수(화학), 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경제학)도 포함됐다. /장은성기자



전주교육지원청이 '찾아가는 맞춤형 학부모교육'을 실시한다.

전주교육지원청, 찾아가는 맞춤형 학부모교육 실시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근)은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전주중·고등학교 외 6개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학부모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부모교육은 평소 자녀교육을 위해 학부모·학생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을 사전 조사한 후 교육을 신청한 7개교(전주중·고, 전주지곡초, 전주대정초, 전주중, 전주양현초, 전주금영초)를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전문 강사가 직접 학교 방문해 학부모 내공교육, 행복한 영어교육 등 다양한

현장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지난 21일 전주중신초 교육에 참석한 학부모(5·2반)는 "같은 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끼리 용기종기 모여서 교육을 받으니 웃음꽃 피는 대화가 오가는 등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미디어(스마트) 교육' 대한 공감도가 더욱 높았다"면서 만족감을 표했다. 이항근 교육장은 "앞으로도 학부모 교육 활성화를 위해 현장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참학력 기반 교육 실천 학술대회 개최

전주교육대학교(김우영 총장)는 22일 교육문화관 2층 김서중홀에서 '참학력 기반 초등교육 실천 및 교육과정 개발'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참학력 기반 초등교육 실천 및 교육과정 개발 포럼에는 김우영 총장, 도내 장학관 및 장학사, 도내 교장 및 현장교사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 사회는 신기철 교수(체육교육과)가 맡았으며, 김우영 총장의 환영사, 주제발표, 종합토론, 교육과정 개발 발표 등 순으로 진행됐다.

도교육청, 삶의 깊이 더하는 학부모 특강 진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에서는 삶의 깊이를 더하는 학부모 특강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전과 오후 2회에 걸쳐 학부모 특강과 전북교육아카데미를 진행한다. 먼저 오전 10시에는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논픽션작가 유유가 '나와 당신을 연결하는 이해와 공감의 글쓰기'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유유 작가는 나를 과시하거나 연민하기 바쁜 '나' 중심의 시대에 '타인'의 입장에 서보는 일의 가치를 역설

한다.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일 때 내가 가진 편견이 깨지고 자기 삶이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나와 타인이 서로 연결되는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저서로는 '글쓰기의 최전선', '쓰기의 말투',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 등이 있으며 2016년 '시사IN', 2017년 '조선일보' '올해의 저자'로 선정된 바 있다. 현재 한겨레에 칼럼을 연재 중이다. 또 저녁 7시에는 2층 강당에서 전북교육아카데미가 이어진다. 4차 산업혁명 직업전문가인 석철진 교수가 강사

로 나서 '미래사회와 교육 4.0'을 주제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교육 방법과 부모의 역할에 대해 소개한다. 석철진 교수는 프랑스 파리 제1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마쳤으며 출판사 위즈덤하우스 CEO, 서울시 정책자문관, 경희대 유럽통합연구소 부소장, 아태국제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경희대학 교정대학원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신청은 전북 학부모지원센터(<http://parents.jbe.go.kr/main/main.jbe>)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김우영 총장, 전남지역 초등학교 근무 졸업생 격려 방문

전주교육대학교 김우영 총장은 19일부터 이틀간 전남지역 초등학교를 방문, 타지역에 근무하는 전주교대 졸업생 초등교원을 격려 방문했다고 밝혔다. 전주교대는 현장의 초등교원이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교수학습자와 현장교사 간의 괴리를 극복하고자, 끊임없이 소통하는 방안으로 초등학교 현장 격려방문 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주교육대학교는 2018년에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올해는 전남지역 초등학교 중 일부를 선정해 추진했다. 19일은 해남초등학교와 해남서초등학교를 방문하고, 20일은 구례중앙초등학교와 북초등학교의 졸업생 교원과 함께 자리하며, 교직 실무 및 생활교육 강화의 필요성, 실습방법의 개



전주교대 김우영 총장이 타지역에 근무하는 전주교대 졸업생 초등교원을 방문했다.

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우영 총장은 "전주교대의 교육실습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타 교대의 사례를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배운 교육과 10년

후 우리에게 배운 아이들 교육은 큰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는 탐구와 학습을 통해 변화를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가 21일 교사교육센터에서 '2019 참·신·애 인문학콘서트'를 개최했다.

전주교대, 지역민과 함께하는 참신애 인문학콘서트 성료

전주교육대학교는 21일 교사교육센터 마음연구홀에서 '2019 참·신·애 인문학콘서트'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에 전주교육대학교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발전 기여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지역민과 함께하는 참·신·애 인문학 콘서트' 운영하고 있다. 이날 강연의 주인공은 한국통계진흥원의 김영진 부장이다. 김영진 부장은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통계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통계분석 컨설팅 회사와 C엔터테인먼트 영화연구소를 거쳐 지금은 한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부에 재직하며 통계 관련 보급 및 활성화사업을 맡고 있다. 이날 강연 주제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로 탁병주 교수(전주교대 수학교육과)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개회식, 특강, 사회자외의 대담, 지역민과의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1차, 2차 콘서트에 이어 이날 진행된 3차 콘서트에도 지역민을 포함한 많은 학부모,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오미리아 평생교육원장은 "지능정보사회에서 통계정보는 소비자이자 생산자로서 모두가 반드시 가져야 할 필수소양이라고 생각한다"며,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참·신·애 인문학콘서트는 민주시민의 역량 함양과 미래교육의 변화상을 함께 공감하며 초등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명은

진심과 정성, 자연을 담아 새로운 문화공간을 창조합니다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남원 노암동 남명역 라우와 N SQUARE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역의 가치와 지역주민의 주거문화 향상에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행복이 시작되는 곳! 남명역 라우에서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가시길 바라며 남명역 라우의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늘, 가정에 축복이 함께하길 축원드립니다.




남명산업개발(주), 남명건설(주), 남명아이씨씨(주), 남명에스테이트(주)
경남 김해시 번화로 67번길 2, 남명프라자 8층(대청동)
Tel. 055)312-4007 / Fax. 055)312-8815 / www.nimcon.co.kr